

기업의 희망과 비전, 충남이 선도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근국



경제상황이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기업은 주문이 줄어든 상태에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원의 감원을 꺼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 추세다. 영세자영업자는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불확실한 여건 하에서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서도 연일 중소기업지원대책, 실업대책, 그리고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의 추가적인 금융부실 등 불확실한 변수와 국내외의 소비위축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돈을 풀고 이자율도 추가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기 몸 챙기기를 위해 일부 우량기업에만 돈을 제한적으로 풀고, MMF등에 시중자금이 고여 있어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2008년 4/4분기 이후 실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침체가 우리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출 감소, 내수 침체로 인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하락하였다. 내수용 출하증가율 또한 전년 동기대비 12.1% 감소하였고, 수출용 출하증가율도 8.9%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4/4분기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4%를 기록하였다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한 2009년의 세계경제전망을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인, 신흥개도국의 경기도 급속한 하강이 전망되어 0.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전망은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경제도 많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다행히 경제반등을 주도할 반도체, LCD를 비롯한 자동차, 석유화학을 품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 지자체장의 경제마인드와 강력한 리더십, 그

리고 충청인 특유의 끈기를 갖고 있다. 실제로 충남은 지난 2년 동안 외자유치 연속 1위, 1,900여개의 기업유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달성기 어려운 전국 수출의 1/10 점유와 GRDP 성장률 6% 등 활기찬 성장을 이뤄왔다.

이제 우리 지역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도래할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을 품어 안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에 공급할 인적자원의 개발과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인력유입 인프라 구축,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기업투자에 따른 애로 해소, 전국 지자체를 선도할 만한 새로운 중소기업지원제도 마련 등이다.

우리 지역 기업도 소비자에게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 ONLY ONE 기술보유를 위한 노력, 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을 탈피한 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좀 더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과 지역민에 대한 우선적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바 있다. 오히려 당시 어려움의 극복과정에서 많은 학습과 교훈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합리적 경영과 경쟁력 증대를 통해 나름대로 자생력을 높이기도 하였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이에 따른 자금압박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조업시간 단축, 종이 한 장도 아끼려는 구두쇠 경영, 그리고 거래처 유지와 새로운 수요처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경제단체, 그리고 지원기관은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발굴, 그리고 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업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잎을 내려놓지만 추운 겨울을 견디며 새로운 봄을 준비한다. 더 풍성한 잎을 만들고 탐스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늘의 이 어려움은 계절의 변화처럼 머지않아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움이 도래할 것이다. 그 새로움이 '희망'과 '비전'이란 이름의 미래라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이다.